

# 테슬라가 쏘아올린 반도체 인재 쟁탈전... 삼성·SK '긴장'

테슬라, 테라팸에 최대 37조 투입  
2나노 웨이퍼 공장 건설 계획  
채용조건에 핀펫·GAA 경험 명시  
삼성전자, 상반기 공개채용 진행  
임직원 평균연봉 전년비 21% 늘어  
SK하이닉스, 수시 채용 체제 전환  
기본급 2964%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Gemini에 의해 생성된 테슬라의 반도체 인력 채용과 이를 경계하는 국내 기업 간의 인재 쟁탈전 이미지.

테슬라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거론되는 '테라팸' 계획을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엔지니어 채용에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존에도 인력 쟁탈전이 이어져 왔지만 빅테크까지 직접 인재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벼랑끝' 수준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핵심 인력 유출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타이완에서 반도체 인재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머스크 CEO는 테라팸 프로젝트에 약 200억~250억달러(한화 약 29조9000억원~37조 4000억원)를 투입해 2나노(nm·10억

분의 1m) 웨이퍼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의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을 한층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TSMC를 비롯해 삼성

전자 등 주요 업체들이 보유한 첨단 공정 인력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특히 테슬라가 채용 조건에 핀펫(FinFET)과 게이트올라운드(GAA) 공정 경험을 명시하면서, 첨단 공정에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인재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까지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개채용에서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연봉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밸런트 하이웨이'라는 새로운 채용 전략을 도입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인재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에서 벗어나 신입과 전임직까지 아우르는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하며 인재 확보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도 전년 대비 60% 가까이 오른 1억 85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더라도 반도체 핵심 기술이 특허로 보호돼 있는 만큼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좁히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재 확보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테슬라의 행보가 글로벌 반도체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sup>o</sup>

## '순현금 100조 확보' 목표... ADR 상장 추진 공식화

### SK하이닉스 주주총회

'폴스택 AI 메모리 기업'으로 도약  
美 첨단 패키징 등 제조역량 강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중심 성장 전략과 함께 '순현금 100조원 확보'라는 중장기 재무목표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시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으로 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투자 확대를 위한 재무 체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금 확보를 강조하는 기조에 대해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일부 긴장감도 감지됐다.

25일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산업 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차선용 미래기술연구 원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안건도 통과됐다. 회사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

대와 온디바이스 AI 확산을 주요 수요 축으로 제시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D램과 낸드를 아우르는 '폴스택 AI 메모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BM4, HBM4E 등 차세

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GPU·ASIC 등 글로벌 AI 칩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1위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AI D램과 고용량 낸드(eSSD)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도 병행한다.

회사는 2025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시장 리더십을 강조했다. D램과 낸드 역시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2024년 말 64%에서 2025년 말 46%로 낮아졌고, 순차입금은 순현금 12조7000억원으로 전환됐다.

SK하이닉스는 '현금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향후 순현금 100조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AI 시대 설비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 체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

심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국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 등 글로벌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선다. 청주 패키징 공장(P&T7) 투자도 추진 중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둘러싼 고성도 오갔다. 일부 주주들은 실적 대비 배당 수준이 낮다며 환원 확대를 요구했고, ADR 추진 과정에서 신주 발행 가능성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한 주주는 "이렇게 실적을 내고도 왜 100조원의 현금을 쌓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는 순현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재무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안정적인 투자 집행을 위한 현금 확보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기 투자와 기술 경쟁력이 유지돼야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BM 사업 전략도 구체화됐다. 회사

는 올해 전체 HBM 출하량은 기존 계획 대비 큰 변화가 없으며 하반기부터 HBM4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버는 HBM뿐 아니라 CPU와 DDR5 등 메모리·연산 자원이 결합되는 구조로, 고객과 협의를 통해 제품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는 올해 내 샘플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미국 증시 상장 추진도 공식화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관련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6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두고 SK하이닉스가 HBM 호황을 기반으로 투자 확대와 사업 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와 주주환원 간 균형이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sup>o</sup>

>> 1면 '피지컬 AI 본격화...'서 계속

## 나프타 수출 제한에도... 석화업계, 원료수급 정상화 '불투명'

정부, 긴급 조치 시행 방안 추진  
공급 차질 장기화 땀 산업 전반 충격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중동발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 조치만으로는 생산 차질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나프타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현장 수급난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유사의 기존 수출 물량 규모를 두고도 업계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수출 제한으

로 실제 시장에 풀릴 나프타 규모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환 물량이 확보되더라도 정상적인 설비 가동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공급 차질이 한 번 발생하면 대체 물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프리카산과 미국산 원유는 운송에만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데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러시아산 나프타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NCC 공장 한 곳이 며칠 사용될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산 역시 유엔 제재로 인해 국내 도입과 수출 가능 여부가 모두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 세계가 동시에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까지 격화하고 있어 업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등 기초 화학소재의 핵심 원료로, 반도체와 가전, 건설,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런 만큼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석유화학산업만에 그치지 않고 전방 산업 전체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동 해협의 운송 여건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현재 추진되는 대응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나프타 수급 문제로 일부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가동 중단과 생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여천 NCC는 개전 직후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일부 공정 가동을 중단했다. LG화학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2공장 가동을 지난 23일부터 멈추고 연간 120만톤 규모의 1공장만 정상 운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역시 예정된 정기보수(TA)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업계 전체가 중동산 이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검토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싸다고 무작정 사들일 수도 없고 공급망도 당장 원활하게 열려 있지 않아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축유를 풀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metr<sup>o</sup>

##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도 유사한 시각을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전 목표가였던 22만원을 29만원으로 상향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추가 상향 조치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목표주가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 다가오는 2분기 예상 메모리 가격의 뚜렷한 강세와 파운드리 부문 실적 개선을 꼽았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12개월 목표주가가 19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AI 호황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투자 사이클이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 사이클보다 훨씬 길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